

강원도 정선 지역의 언어 연구*

李秉根** · 金鳳國***

I. 머리말

江原道 旌善郡은 보기 드문 오지 중의 한 곳이었다. 일찍이 小倉進平 (1940, 1944)에는 조사지점의 하나로 강원도 旌善이 포함되어 있었다.

歙谷	通川	長箭	高城	杆城	襄陽	注文津	江陵	三陟
蔚珍	平海	旌善	盈越	平昌	原州	橫城	洪川	春川
華川	楊口	麟蹄	金化	鐵原	平康	伊川		

그러나 小倉進平의 方言研究 論著 어디에도 旌善의 자료는 제시된 바가 없다. 구석기 시대에도 사람들이 살았고 고려말의 개성 두문동으로부터 七賢의 가족이 被居하여 居七賢洞에 숨어 살면서 그 자손들이 퍼졌던 곳이라 하여도 小倉進平은 학생들을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못했던 深山幽谷 이곳까지 조사시키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재의 강원도의 영동, 영서방언 모두를 '京畿道方言'에 포함시켰는바, 강원도방언을 조사하지 않았던 河野六郎(1945)에서도 명칭만 '中鮮方言'으로 바꾸어 대체로 小倉進平의 京畿道方言에 상응한다고 하였다. 이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공식적인 방언구획은 우선 한국의 현대 방언들을 성조방언인 동부방

* 이 조사 보고서는 2001년도 서울대학교 발전기금 일반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는바, 연구책임자는 李秉根이고, 보조연구원은 金鳳國이었다.

** 본과 교수

*** 본과 강사

언과 음장방언인 서부방언으로 크게 상정할 수 있고(李秉根 2001:24) 그리되면 영동방언은 영서방언과는 달리 동부방언에 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선 사람들은 자신들의 언어가 ‘똑똑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 말은 영서지방이 아니라 영동방언권에 대한 자기인식을 반영하는 것이다.

특히 1960년대 이후에 한국의 계속적인 근대화 과정에서 새로운 교통로가 뚫리고 새로운 산업(예컨대, ‘카지노’ 사업)이 일어나고 특히 최근의 동강댐 건설계획과 관련해서 한국 최고의 관광지로 알려지면서 외지인들의 이주와 출입이 빈번해지고 지역사회 구조도 달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히 전통적인 언어적 특성에도 변화를 수반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났고 계속 일어나리라 본다. 따라서 이 지역의 언어를 시급히 수집하고 분석하여 언어적 특성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이 조사연구는 해당 지역의 현지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는데, 그 조사는 2차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1차 조사는 2002년 1월 21일부터 4일간에 이루어졌으며, 1차 조사된 자료에 대하여 보충하고 확인 조사를 한 2차 조사는 2002년 6월 16일부터 3일간 이루어졌다. 조사항목은 주로 음운적인 특징과 문법적인 특징, 그리고 어휘적인 특징과 관련된 것을 위주로 하였다. 조사지점은 1차 조사에서 江原道 旌善郡 旌善邑과 江原道 旌善郡 北坪面이었으며, 2차 조사에서도 동일한 지점이었다. 조사 연구는 李秉根(책임연구원)과 金鳳國(보조연구원)이 주로 하였으며,¹⁾ 제보자는 나원수 할아버지(당시 나이, 78세), 전홍 할아버지(당시 나이, 83세)였는데, 나원수 할아버지에게서는 주로 생활이나 민속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끔 하여 그것을 자료로 이용하였고, 전홍 할아버지에게서는 활용형이나 곡용형, 어휘 등을 질문하여 기초로 삼았다.

정선 지역어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그리 많지 않았다.²⁾ 그리고 정선 지역어를 하나의 독립된 언어체계로 파악하여 이 지

1) 1차 조사 때에 서울大 宋喆儀 교수와 석사과정 金世煥 군도 함께 참여하여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 자리를 빙어 감사를 드린다.

2)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0)에서 제시된 『韓國方言資料集 II』(江原道 篇)에 旌善 자료가 보이는데, 이는 자료 보고서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예비조사 단계에서 이 지

역어의 특징만을 다룬 논문은 거의 全無하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정선의 자료를 보고한 元勳義(1978)에서는 국어음운사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주제에 해당하는 정선 지역어의 자료가 일부 보이며, 元勳義(1979)에서는 이 지역어의 문법 형태(종결어미, 피사동접미사, 인칭대명사)가 일부 다루어졌으나 대부분은 자료를 분류하려는 논의였다.³⁾

李翊燮(1981)은 현지 조사와 통신 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단어 자료(이 중에는 ‘음운’과 ‘어법’에 속하는 예도 약간 포함되어 있음)를 바탕으로 한 단어지리학적인 연구로서, 남한의 강원도 지역에 한정시켜 영동·영서의 언어분화를 다루었다. 이에 의하면 강원도방언은 크게 영동방언과 영서방언(鐵圓, 華川, 楊口, 麟蹄, 春川, 洪川, 橫城, 原州)으로 나누어지며, 영동방언은 다시 4개의 하위 방언으로 나누어 ① 북단 영동방언(高城, 襄陽), ② 강릉 방언, ③ 삼척 방언, ④ 서남 영동방언(平昌, 旌善, 寧越)으로 구획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선 지역어는 바로 서남 영동방언에 속하는 셈이다.

金鳳國(2002가, 2002나)는 영동방언과 영서방언의 차이를 논의하면서 이 지역어의 음운적인 특징에 대해서 언급한 바 있는데, 음운적인 특징은 영동방언에 속하는 江陵·三陟과 거의 비슷한 특징을 보인다고 하였다. 특히 운소와 관련하여 旌善 지역어는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의 전이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성조방언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며 음장방언적인 특징을 보이기도 하

역어의 언어적인 특징을 개략적으로 살피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3) 영동방언과 영서방언의 특징을 살펴보려고 했던 초기의 논의로는 小倉進平(1923, 1928)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영동방언과 영서방언의 특징을 논하면서 정선 지역어에 대한 자료는 구체적으로 들지 않았지만, 영동방언은 남북간에 언어상의 차이가 있으며, 그 남부인 울진과 평해는 경북방언에 속하고, 그 여파는 강릉과 주문진 부근에까지 미치고 있으며, 그 以北은 경북방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산방언의 계통에 속한다고 하였다.

영서방언은 함경방언의 영향을 입지 않았으며, 평창·영월 지방은 경상방언 내지 전남방언의 영향을 입고 있다고 하였다. 또한 강원도 동남부를 제외한 부분, 즉 중부는 춘천·인제 지방, 북부는 경원선에 연결된 지대부터 함경남도 원산에 이르는 지방, 동부는 간성·양양 지방, 남부는 횡성·원주 내지 충북 제천에 이르는 지방이 경기방언의 계통을 잇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서울 지방의 말과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이를 요약해 보면, 결국 강원도방언은 대체로 경기방언의 연장선에 있고, 동남부는 남부방언의 영향을 입고 있다고 하였다.

여 제3의 방언, 즉 성조·음장 혼효 방언으로 분류해야 되지 않을까 하였다.

이런 논의들도 모두 인접 방언과의 비교·대조적인 관점에 초점을 둔 논의임은 물론이다. 특히 문법적인 특징과 관련된 체계적인 논의가 없는 것이 아쉬운데, 본 연구는 기존의 음운적인 특징 이 외에도 문법적인 특징을 살피기 위해 문법 형태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시도하여 정선 지역어가 지닌 방언적인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을 중요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본고도 불충분한 현지조사로 한계를 지니고 있어서 역시 체계적인 서술에 이르지는 못한다.

II. 음운적 특징

정선 지역어의 음운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 지역어의 음운목록을 확인하고, 이 지역어가 가지는 전형적인 음운현상을 음운론적으로 서술하고자 하는데, 이를 통해 정선 지역어의 음운적 특징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1. 음운목록상의 특징

1) 음 소

정선 지역어의 자음목록은 'ㅂ, ㅃ, ㅍ, ㄷ, ㄸ, ㅌ, ㅅ, ㅆ, ㅈ, ㅉ, ㅊ, ㅋ, ㄲ, ㅋ, ㅎ, ㅁ, ㄴ, ㅇ, ㄹ'의 19개로 구성되어, 그 자체로서는 중앙어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정선 지역어의 모음목록은 '이; 애, 애, 위[i], 와[j], 으, 어, 아, 우, 오'의 10개로 구성된다. 10개의 모음들이 서로 변별되는 사실은 최소대립쌍에 의한 의미 대립 관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단모음 '애'와 '애'도 분명한 대립을 보여 준다.

(1) 애(群) - 때(垢)

베(禾) - 배(梨, 舟, 腹)

개:(蟹) - 개:(犬)⁴⁾

메:다(負) - 매:다(繫)

캐다(點燈) - 캐다(採)

(1)의 예처럼 어두음절의 위치에서 분명한 대립을 보이며, 이뿐 아니라 비어두음절의 위치에서도 거의 대부분 ‘에’와 ‘애’의 대립을 보이지만, 비어두음절의 특정 환경에서는 ‘에’와 ‘애’의 대립이 다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2) 가. 시캐(食醤), 가매(旋毛, 轆), 닫쌔(닷새), 지:지개(기지개)
 나. 을챙이, 고쟁이, 모쟁이(蚊), 놀챙이(獐), 나생이(薌)

(2)는 비어두음절의 위치에서 변이음 [e], [E], [ɛ] 등으로 실현되는 예를 보여 주는데, (2가-나)는 비어두음절 위치의 모음이 표준어형을 고려하면 ‘애 [ɛ]’로(식해, 을챙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의 모음조화를 고려하면 ‘애[ɛ]’로(모쟁이, 나생이) 나타나야 할 예들이나, 실제로는 변이음 [e], [E], [ɛ] 등과 같이 수의적으로 실현된다. 이렇게 대립을 보이지 않는 [e], [E], [ɛ] 등의 실현은 (2가)와 같이 주로 개음절 어간일 경우에 한정되거나, (2나)와 같이 해당 폐음절의 말음이 ‘ㅇ[ŋ]’일 경우에 한정된다. (2)와 같은 환경을 제외한 나머지 형태소 내부나 형태소 경계에서는 ‘에’와 ‘애’의 대립이 비교적 분명하게 지켜지는 경향을 보인다. 본고에서는 방언형을 제시하는 경우에 편의상 중간음 [ɛ]는 피하고 인식되는 대로 ‘에’ 또는 ‘애’로 나누어 하였다.

4) 정선은 후술할 ‘운소’에서 언급할 바와 같이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의 전이지역에 속하여, 성조방언적인 특징과 음장방언적인 특징을 모두 특정하게 가진다. 성조방언적인 특징으로는 각 단어에 대해서 고정적인 성조형을 보인다는 점인데, 그러기 때문에 조사자의 경우에는 각 단어에 성조(저조(L), 고조(H), 상승조(R))를 표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지역의 화자들은 저조와 고조에 대한 인식이 불명확한 듯하며, 상승조에 대해서도 ‘처음이 낮다가 높아져 가는 소리’보다는 ‘음이 길다’고 하는 인식이 있는 듯하다. 본고에서는 성조의 표시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L(저조), H(고조), R(상승조)’로 나타내지만, 그 외에는 별도의 성조 표시를 하지 않을 것이며, 다만 상승조가 뚜렷한 경우에는 장음 부호 ‘:’를 표시하기로 한다.

정선 지역어에서의 이중모음도 다른 방언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① y계 이중모음

y가 선행하는 이중모음으로는 ‘야, 여, 요, 유, 애, 예’가 있으며, 그 예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 (3) 가. 여덟(八), 여섯(六), 跃-, 달력, 물결(波), 물건(物件), 뚜껑(뚜껑)
- 나. 야단(惹端), 跃-(薄), 양반(兩班)
- 다. 유리(琉璃), 윤노리(윤놀이)
- 라. 요리(料理), 요즘, 교통(交通), 흥성(橫城)
- 마. 엔·날(昔), 예순(六十), 예자(女), 엔지(연지), 엔장(鍊匠)
- 바. 앵미리, 애:기(話)

(3)은 y계 상향이중모음 ‘야, 여, 요, 유, 애, 예’의 예를 보여 주고 있는데,⁵⁾ 이들은 실제의 실현에서 여러 음운적 제약을 받아 그 분포 양상이 다를 수는 있다. 이 지역어에서는 대부분 어두음절의 위치에서 선행하는 자음이 없을 때에 이중모음으로 실현되는 경향이 있으며, ‘자음-y-모음’ 연쇄에서 는 상향이중모음이 심한 제약성을 보인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y-모음’이 통시적으로는 單母音으로 축약되고(거자>개자, 머느리>메느리, 鄉校>행교), 일부의 예는 y 탈락되었기(요강>오강, 겨울>저울, 형>성) 때문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4) 가. 메느리, 개자, 캐-(點燈), 세(舌), 뱀(뱀), 비네(簪)

5) 이 지역어에서는 [yi:ll](쓸개), [yi:ŋgam](수관), [yi:ŋn](蔚) 등의 예처럼 이중모음 [yi] 가 실현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중모음 'yi'는 장모음 환경에서의 모음이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어서 변이음으로 처리할 가능성이 있으며(李秉根 1973:137), 또한 음소로 인정하기 위한 최소대립쌍이 쉽게 찾아지지 않는다. 물론 [yʌ:l](+)과 [yi:ll](쓸개)을 최소대립쌍으로 볼 가능성이 없지는 않으나, 李秉根(1990:121)에서의 지적처럼 수를 셀 때, 한 음절 수사를 두 음절 수사에 음의 길이를 맞추기 위해 '[열:]'과 같이 장음이 실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리고 '[열:]'이 長音이 아니라 는 사실은 '열하나, 열둘'에서의 '열'이 短音으로 실현되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만약 제1음절이 본래부터 長音이라면 ['열:하나], ['열:둘']로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나. 행교(鄉校), 행기(香氣), 햄(頰)
- 다. 휘대폰(휴대폰), 뼈주카-(尖), 폐(표)
- 라. 성님(형님), 저옳(冬), 정기(驚氣), 전디-(耐),
호과(效果), 오강(요강), 비로(肥料), 당노(糖尿)

(4)는 상향이중모음이 통시적인 변화를 겪은 예들이다. 상향이중모음의 변화를 보면, 하나는 '(자음)-활음-모음'에서 '활음-모음'이 축약되어 單母音으로 변화했으며, 다른 하나는 '(자음)-활음-모음'에서 활음이 탈락했다. (4가-다)는 상향이중모음이 축약되어 단모음으로 변화한 예로서 (4가)는 '여)애' 축약, (4나)는 '야)애' 축약, (4다)는 '유)위', '요)외' 축약이 실현된 경우이다. 다만 '표)폐'의 경우에는 순음 다음에서 원순성을 잃고, 이화 현상을 겪은 결과이다. (4라)는 상향이중모음이 y 탈락되어 단모음으로 변화한 예들이다. 따라서 정선 지역어의 y계 이중모음의 활음 /y/는 음절구조에서 보아 자음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② w계 이중모음

w가 선행하는 이중모음은 정선 지역어도 중앙어와 동일하게 '와, 위, 웨, 웨'의 4개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5) 가. 원수(怨讐), 배권(百圓)
- 나. 황:갑(還甲), 과:부(寡婦), 왕(王), 광지리, 화토, 광이(팽이), 사과
- 다. 웬닐(웬일)
- 라. 돼:지(豚), 쇄:기, 폐:리(파리), 희매(햇대)

(5)의 예에서 보듯이 '위, 와, 웨, 웨'처럼 w계 이중모음이 4개가 존재하는데, y계 이중모음과는 달리 어두음절 위치나 비어두음절 위치에서도 흔히 실현됨으로써 특별한 제약을 보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위'는 단모음 [i]로 실현되는 경향이 강하며, 이중모음 [wi]로는 거의 실현되지 않아서 이중모음 체계에서 제외된 것이다.

w가 선행하는 상향이중모음은 크게 두 가지 방향의 변화를 겪었다. 하나는 이중모음이 축약되어 단모음으로 실현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w가 탈

락한 경우이다. 다음의 예를 보자.

- (6) 가. 풍(雉), 도:(두어, 二三)
 나. 괴:(궤, 橋), 꿔:-(꿰-, 貫)⁶⁾
 다. 사월(三月), 시번(十圓), 멋:(무엇), 벅:(虧)

(6가-나)는 이중모음이 단모음으로 축약된 예이며, (6다)는 w가 순음 다음에서 탈락한 이화 현상의 예이다. (6가)는 '웨>오' 축약, (6나)는 '웨>외[ø]' 축약으로 볼 수 있으며, (6다)의 예는 '사월>사월, 시번>시번, 무엇>뭣', '부엌>벙' 같은 '순자음-w' 연쇄에서 [+원순성]의 중복으로 인해서 w가 탈락한 경우인데, 이것은 '보+-아 → 봐: → 바:'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원순성]의 중복으로 인해 w가 탈락하는 것과 평행적이다. 이 때에 두 음절이 한 음절로 바뀌는 경우에는 잃어버린 음절에 대한 보상적 장모음화 또는 上昇調化를 흔히 입는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정선 지역어의 현존하는 y계 이중모음과 w계 이중모음을 음운론적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y계 이중모음

혀의위치 높이	비후설모음		후설모음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모음				yu
중모음	ye		yə	yo
저모음	yɛ		ya	

w계 이중모음

혀의위치 높이	비후설모음		후설모음	
	비원순	원순	비원순	원순
고모음				
중모음	we		wə	
저모음	wɛ		wa	

6) '뀐다, 꿔니, 궤라'의 활용형을 보인다.

2) 운 소

정선 지역어는 지리적으로 동쪽과 남쪽에 각각 江陵·三陟과 寧越 등의 성조방언적인 특징을 보이는 지역과 인접해 있으며, 서쪽으로는 음장방언적인 특징을 보이는 지역과 인접해 있다. 따라서 접촉방언적인 성격을 가질 가능성이 있는 지역어로 보인다. 이 지역어는 운소적 특징에 있어서 실제 인접한 성조방언과 유사하게 성조에 가까운 특징을 보이기도 한다.

(7) 말(馬) + 이 → 마리[HL] 말(馬) + 부텀 → 말부텀[LHL~HLL]

말(斗) + 이 → 마리[LH] 말(斗) + 부텀 → 말부텀[LHL]

말(語) + 이 → 마리[RL] 말(語) + 부텀 → 말부텀[RLL]

밤(夜) + 이 → 바미[LH] 밤(夜) + 부텀 → 밤부텀[LHL]

밤(栗) + 이 → 바미[RL] 밤(栗) + 부텀 → 밤부텀[RLL]

되-(斗) + 구 → 되구[LH] 되-(斗) + 더라 → 되더라[LHL]

되-(化) + 구 → 되구[HLL] 되-(化) + 더라 → 되더라[LHL]

되-(硬) + 구 → 되구[RL] 되-(硬) + 더라 → 되더라[RLL]

딸(女) + 이 → 따리[LH] 둘(年) + 이 → 도리[LH]

딸(苺) + 이 → 따리[RL] 둘(石) + 이 → 도리[RL]

가마이[HLL](叭) - 가마이[LHL](가만히)

고름[HLL](웃) - 고름[LH](膩)

인대[HLL](戴) - 인대[RL](連)

맨다[LH](除草) - 맨다[HLL](繫)

(7)의 예를 보면, 정선 지역어에서 실현되는 성조형을 어절 단위로 조사했을 때 고정적인 패턴을 보여 성조방언이 가진 특징과 거의 비슷한 면을 볼 수 있다. (7)의 예는 인접한 성조방언권인 강릉·삼척 지역어의 성조형과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조를 가진 강릉·삼척 지역어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氣息群 내에서는 상승조와 고조가 동시에 올 수 없고, 하나의 상승조나 하나의 고조만 오는데, 상승조는 氣息群

의 첫음절에서만 실현되는 성조배열제약이 존재함으로써, 하나의 氣息群 내에서는 음성적으로 가장 높은 음이 오고 그 앞과 뒤의 음절에 그보다 낮은 음들이 위치하게 된다.⁷⁾ 그러나 성조적인 특징은 상당히 의식적인 경우에 분명히 인식되는데,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흔히 성조의 성격이라기보다는 악센트적인 성격을 따면서 문장의 억양에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 때에 상승조는 일상적인 발화에서 때로는 장음으로 인식되기도 하여 성조방언과 음장방언의 중간적인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말(馬, 斗)'과 '말(語)'의 대립도 음장의 대립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그런데 활용형이나 곡용형의 성조형을 조사할 때와는 달리 일상적인 발화에서는 딴 성조방언과는 달리 성조형이 일정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8) 몰구'(머루), 몰구'가, 몰구라능 거는
두루'미, 두루'미가~두루미'가, 두루'미랑 거는~두루미랑 거'는

(8)의 예를 보면, '몰구[LH]', 몰구가[LHL], 두루미[LHI], 두루미가[LHLL], 두루미랑 거는[LHLLLL]'과 같이 고정적인 패턴을 보여 嶺東의 강릉. 삼척 지역 어에서 나타나는 성조적인 특성을 보이다가도, 때에 따라서는 수의적으로 '두루미가[LLHLL], 몰구라능 거는[LLLLHLL], 두루미랑 거는[LLLLHLL]'에서처럼 氣息群의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고정적으로 높은 음이 오는 경향을 보여, 요컨대 순수한 성조적 특징이라기보다는 악센트적인 특징을 보여 주기도 한다.

또, 정선 지역어는 다음과 같은 동남방언의 성조가 갖는 한 성격을 분명히 지니고 있기도 하다. 동남방언에서 나타나는 성조의 특징 중에서는 접미사 '-앙이/-엉이, -아지/-어지, -아리' 등의 접미사가 결합하여 파생어가 형성될 때에 이를 접미사는 체언 어간의 성조형에 상관없이 항상 고정적인 성조형을 보이고 있는데, 이 지역어 또한 그러하다.

7) 이 지역어에서 '聲調形'을 쓰게 되면 성조방언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다. 이 지역어는 성조방언과는 조금 다른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성조방언으로 분류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音調形'이 더 적확한 용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성조와의 특성을 검토하는 자리이므로 용어 기술의 편의성과 간결성을 위해 '성조형'으로 통일해서 쓰고자 한다.

- (9) 가. 나생'이(나식+양이), 토깽'이(톳기+양이)⁸⁾
 모개'이(모기+양이), 호맹'이(호민+양이)
 나. 지례기(기뢰+여기), 뿌레기(불晦+여기), 뭉태'기(*뭉타+여기)
 봉다'리(*봉디+아리)
 다. 까맣'다, 파랗'다, 누렇'다, 멀겋'다, 높다랗'다.

(9)는 기원적으로 개음절인 어근에 접미사가 결합하여 어근말 모음이 탈락하여 형성된 파생어의 경우이다. (9가)는 어근에 접미사 ‘-양이’가 결합한 예인데, ‘나식+양이’, ‘톳기+양이’에서는 어근말의 ‘이’ 모음이 탈락하여 각각 ‘나생이’[LHL], ‘토깽이’[LHL]가 나타나게 되었으며, ‘모기+양이’, ‘호민+양이’에서 어근말의 모음이 탈락하여 각각 ‘모개이’[LHL], ‘호맹이’[LHL]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 때의 성조형은 어근의 성조형에 상관없이 ‘-양이’의 첫음절에 고조가 고정적으로 놓이는 것으로 접미사의 성조형은 고정적인 [-HL]이다. (9나)는 어근에 접미사 ‘-여기’ 또는 ‘-아리’가 결합한 예인데, 해당 어근과 접미사 ‘여기’, ‘아리’ 등의 결합에서 어근말의 모음이 탈락하여 현재의 파생어가 형성된 경우이다. 이 때에도 ‘-여기’ 또는 ‘-아리’가 가진 고정적인 성조형인 [-HL]이 파생어 형성 과정에서 어근의 성조형에 상관없이 그대로 유지되어 ‘지례기’[LHL], ‘뿌레기’[LHL], ‘뭉태기’[LHL], ‘봉다리’[LHL]와 같은 성조형으로 나타난다. ‘감+얗다’ 등의 경우에도 파생 접미사 ‘-왕-’이 늘 고조로 실현됨은 물론이다.

지금까지는 정선 지역어가 갖는 성조의 성격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화자들은 음의 높고 낮음에 대한 인식보다는 음의 길고 짧음에 대한 인식을 더 뚜렷이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승조에 대한 인식을 보면 ‘처음이 낮다가 나중이 높아지는 소리’로 인식하기보다 ‘좀더 길게 발음된다’고 인식하는 점에서 보아, 정선 지역어를 성조방언만으로 단언하기 힘든 듯하다. 그렇다고 하여 정선 지역어를 순수한 음장방언으로 분류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비록 장음을 인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어도 음장방언적인 특징을 보이는 중부방언이나 강원 영서방언이 지니지 못한 성조방언적인 특징도 있기 때문이다.

8) 이들의 실제 음성형은 鼻母音化된 ‘나새~이~’, ‘호매~이~’, ‘토깨~이~’ 등이나, 편의상 ‘나생’이, ‘호맹’이, ‘토깽’이 등으로 전사하였다.

이 지역어는 기준의 성조방언, 음장방언, 무음장·무성조방언으로 확연히 분류한 체계와는 또다른 차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즉 정선 지역어의 운소적인 특징은 성조방언의 특징에 음장방언의 특징도 더러 있어서 성조방언도 음장방언도 아닌 제3의 운소방언, 즉 성조·음장 혼효 방언으로 분류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정선 지역어의 이러한 운소적 특징 때문에 본 조사연구에서는 성조와 음장상의 구별이 뚜렷한 경우에만 해당 운소적 기능을 부여하기로 한다. 장음을 뚜렷이 인식하고 발음하는 경우는 단어의 첫음절에 한정된다.

2. 음운현상

이 절에서는 정선 지역어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여 주는 몇몇 음운현상을 기술하고자 한다.

1) 경음화

정선 지역어에서는 다른 방언과 마찬가지로 폐쇄음 뒤의 경음화나, 활용상에서 비음 뒤의 경음화가 실현되지만, 다음과 같이 곡용상에서 체언 어간이 유음으로 끝나는 경우에도 수의적으로 일어난다.

- | | |
|-----------|------------------------------------|
| (10) 말(馬) | ; 말뚜~말두, 말보다, 말조차, 마리, 마례 |
| 쌀(米) | ; 쌀뚜~쌀두, 쌀보다, 쌀조차, 싸리, 싸례 |
| 달(月) | ; 달뚜~달두, 달보다, 달조차, 다리, 다례 |
| 서울(京城) | ; 서울씨~서울서, 서울뚜~서울두, 서울보다, 서우리, 서우례 |

(10)은 체언 어간말자음이 유음으로 끝나는 예인데, 이 어간에 각각 어미 '-두, -서, -보다, -조차, -이, -에' 등이 결합했을 때의 곡용형을 보여 준다. 이러한 곡용형에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두, -서, -보다, -조차' 중에서 특히 '두'나 '서'가 유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결합했을 때 수의적으로 경음화가 실현되는 것이다.

통시적으로도 이 지역어는 중앙어에 비해 어두 경음화를 겪은 예들이 많 은데, 다음이 그러한 예들이다.

- (11) 깨금(개암), 꺼지다(건지다), 꺼꾸랭이(거위, 蟲)
뙤('옻놀이'의 도), 뺑더리다(두드리다)
뼱다(삶다), 쳐울다(기울다), 쭈물구다(주무르다)
뺏다(벗다), 뿌시레기(부스러기), 뿔구다(불리다), 뿌꾸대다(부수다),

2) ㄷ 구개음화

정선 지역어에서는 체언 어간말이 'ㅌ'인 경우에 어미 '-이'와 결합하여 'ㅊ'으로 교체되는 ㄷ 구개음화가 존재한다. 체언 중에서 'ㄷ'으로 끝나는 어 간이 없기 때문에 어미 '-이'와 결합하여 'ㅈ'으로 교체되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 (12) 가. 밑(底) ; 미치, 미틀~미트, 미튼~미트는, 미테, 미트로
ヰ(豆) ; 파치, 파틀~파트, 파튼~파트는, 파테, 파트로
예) 절(傍), 별(陽), 끝(端), 밑(田), 절(傍), ...
- 나. 끝(花) ; 꼬치, 꼬틀~꼬트, 꼬튼~꼬트는, 꼬테, 꼬트로
율(吳) ; 유치, 유틀~유트, 유튼~유트는, 유테, 유트로
예) 율(吳), 빌(光), 율(吳), 술(炭), 날(顛), ...

(12)는 ㅌ으로 끝나는 어간이 각각 어미 '-이', '-을~-으', '-은~-으는', '-에', '- 으로' 등과 결합한 곡용형의 예를 보여 주는데, 특히 ㅌ으로 끝나는 어간이 주격 '-이'와 결합하여 ㄷ 구개음화가 실현된 것을 알 수 있다. (12가)의 예 는 역사적으로 어간말이 'ㅌ'으로 끝나는 체언인 반면, (12나)는 역사적으로 어간말이 'ㅈ', 'ㅊ'으로 끝나는 체언이다.

이 지역어는 공식적인 현상을 보여 주는 예뿐만 아니라 통시적인 현상으 로 보이는 예들도 존재한다.

- (13) 가. 다치-(닫하-), 무치-(묻하-), 가치(같이)
나. 마지(맡이), 해도지(해돋이), 빼다지(빼닫이)

- (14) 가. 지등(가등), 지례기(길이), 지름(기름), 지뿌다(기쁘다)
 지시랑~지실(기슭), 지심매다(김매다), 지장(기장), 지후(氣候)
 지저구(기저귀), 지장(기장), 지푸다(짚다), 지대다(기대다), 질구다(기
 르다)
- 나. 저드랑~저타리(겨드랑), 저웁(冬), 정끼(驚氣), 전다(耐), 결(절), 쥐다
 (겪다)
- 다. 치(키), -찌리(끼리), 찌무다~찡구다(끼우다), 찌다(끼다) cf. 켜다(켜다,
 點燈)

(13)은 형태소 경계에서 ㄷ 구개음화가 실현된 예이다. (13가)는 어간말
 트인 용언 어간과 피동접미사 '-하-'가 결합하여 ㄷ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
 (닫-+하-)다치-)와 어간말 트인 용언 어간과 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ㄷ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같-+이)가치)를 보여 주고 있는데, 이 예들은 모
 두 ㄷ 구개음화의 규칙 적용을 받는 자음이 'ㅌ'이다. 즉 '같-'이나 '닫하-)다
 티-' 등의 'ㅌ'이 그것이다. (13나)는 ㄷ 구개음화의 규칙 적용을 받는 자음
 이 'ㄷ'인 예로서, 명사 '맡'에 접사 '이'가 결합하여 ㄷ 구개음화가 일어난
 예(맡+이)마지)와 용언 어간과 명사파생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ㄷ 구개음화
 가 일어난 예(빼닫-+이)빼다지)를 보여 주고 있다. (12)의 예에서 알 수 있
 듯이 공식적인 ㄷ 구개음화 현상에서는 규칙의 적용을 받는 피동화음으로
 'ㅌ'만 존재하지만, (13)의 예에서는 피동화음으로 'ㄷ, ㅌ'이 존재한다.

(14)는 ㄱ-구개음화 현상을 보여 주는 예로서 이들은 모두 형태소 내부
 특히 어두에서만 적용된다. (14가)는 동화주가 '이'이며, 규칙 적용을 받는
 피동화음이 'ㄱ'인 예이며, (14나)는 동화주가 y이며, 규칙 적용을 받는 피동
 화음이 'ㄱ'인 예이다. 그리고 (14다)는 동화주가 '이'이며, 피동화음이 'ㅋ,
 ㄲ'인 예이다. 이 중 (14다)에서 'ㅋ'인 경우에 ㄱ-구개음화 현상이 일어난
 예로 '기)치'가 있기는 하나, '켜-(點燈)캐-'에서 보듯이 ㄱ-구개음화의 적용
 을 받지 못하고 '여)에' 축약의 적용을 받은 경우도 있다. 이 '켜->캐-'는 역
 사적으로 '혀-'였었는데 '써-'로의 변화형도 보이지 않는다.

3) 자음군단순화

자음군단순화 중에서 흔히 방언차를 보이는 경우는 'ㄹ'을 선행하는 자음군들이다. 정선 지역어에서는 그 중에서 '리, 래'으로 끝나는 자음군이 단순화되는 경우에 탈락하는 자음은 'ㄱ, ㅂ'이고, 유지되는 자음은 'ㄹ'이다.⁹⁾

- (15) 가. 늙-(老) ; 늘른다, 늘꾸, 늘그니, 늘거
 끊-(搔) ; 끌른다, 끌꾸, 끌그니, 끌거
 예) 밝-(明), 맑-(淸), 烟-(赤), ...
- 나. 뚫-(貫) ; 뚫른다, 뚫꾸, 뚫부니, 뚫버
 예) 넓-(廣), 窄-(短), 跛-, 窮-(薄),¹⁰⁾ ...

(15가)는 어간말 자음군이 리인 예이며, (15나)는 어간말 자음군이 래인 예인데, 이들이 각각 어미 '는다, -구, -으니, -어/-아'와 결합한 활용형을 보여 준다. (15가)의 예는 자음군 ㅌ이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단순화되면서 후행하는 자음 ㄱ이 탈락하는 예를 보여 주며(늙-+는다 → 늘른다, 늙-+구 → 늘꾸), (15나)의 예는 어간말 자음군 ㅊ이 단순화되면서 후행하는 자음 ㅂ이 탈락하는 예를 보여 준다(뚫-+는다 → 뚫른다, 뚫-+구 → 뚫꾸).

그런데 곡용의 경우에는 활용에서의 자음군단순화의 양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다음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 (16) 가. 鷄 ; 닥#, 달기, 달그~다글, 당만, 닥뚜, 닥뿌텀
 土 ; 흑#, 흑기, 흑그~흑글, 흥만, 흑뚜, 흑뿌텀
 나. 八 ; 여덟#, 여덟비, 여덟보~여덟볼, 여덟두~여덟뚜, 여덟만, 여덟부
 텀

9) '밟-(踏)'의 경우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 준다. 이들의 활용형은 '발:른다~밤:는다, 발:꾸~밥:꾸, 발부니, 발바~발버'로 나타나서 '래' 중 자음군단순화에 의해 'ㄹ'이 탈락하기도 하고, 'ㅂ'이 탈락하기도 한다.

10) '廣'과 '短'의 의미를 지닌 단어는 각각 다음과 같은 활용형을 보이기도 한다.
 '廣' ; 너르구, 너르다, 너르니, 널리
 '短' ; 짜르구, 짜르다, 짜르니, 짤리~짤라

(16)의 예에서 표준어형 '닭, 흙, 여덟'에 대응하는 정선 지역어의 단어가 단독형이나, 조사 '-이, -으~을, -만, -두, -부텀'과 결합했을 때의 곡용형을 보여 주고 있는데, (16가)는 자음군 라이 단순화되어 선행하는 자음 라이 탈락하는 경우이며, (16나)는 자음군 래이 단순화되어 후행하는 자음 뱐이 탈락하는 경우이다.

(16가)의 경우는 활용상에서의 자음군 라이 단순화되면 후행하는 자음 그이 탈락하는 것과 달리 곡용상에서의 자음군 라이 단순화되면 후행하는 자음 라이 탈락하는 점에서 곡용상에서와 활용상에서의 단순화에 의한 자음의 탈락 양상이 차이가 있음을 보여 주며, (16나)의 경우는 곡용상에서나 활용상에서의 자음군단순화에 의한 자음의 탈락 양상은 모두 일치하지만 다음에서 차이를 보인다. 즉 활용상에서는 '뜰:-+구 → 뜰:꾸'처럼 필수적인 경음화가 일어나나, 곡용상에서는 '여덟+두→여덜두~여덜뚜'처럼 수의적인 경음화가 일어난다. '여덟'은 정선 지역어에서도 자음군 '래'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마치 'ㄹ' 말음 체언들처럼 '-두(도)'와 같은 조사의 결합에서 수의적인 경음화를 일으키고 있음이 흥미롭다. 경음화와 관련해서 '여덜'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음군단순화와 관련지어서 다음의 예들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 (17) 屋蓋 ; 지붕*, 지붕기, 지붕개, 지붕글, 지붕두, 지붕부텀
 脣 ; 입술*, 입술기, 입술개, 입술글, 입술두~입술뚜, 입술부텀
 秋 ; 가일*, 가알기, 가알게, 가알글, 가알두~가알뚜, 가알부텀

(17)의 예들은 표준어형 '지붕, 입술, 가을'에 대응하는 정선 지역어의 어형에 단독형이나 조사 '-이, -에, -을, -두, -부텀' 등이 결합한 곡용형의 예인데, 이들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에서 분석되는 이형태만 고려한다면 이들은 자음군 이, 라이 된다. 그러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에서는 이들이 자음군이라고 보기 어려운데, 예컨대 자음군 이이라면 '지붕ㄱ+두 → *지붕뚜, 지붕ㄱ+부텀 → *지붕뿌텀'과 같은 곡용형이 쓰여야 되나, 그러한 음성형은 확인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음군 라이라면 '입술+두 → 입술두~입술뚜, 입술+부텀 → *입

'술뿌텀'과 같은 곡용형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음성형 '*입술뿌텀'은 확인되지 않는다. 자음군 ㄹ은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셈이다. 왜냐하면 활용상에서 ㄹ은 자음군단순화에 의해 후행 자음 ㄱ이 탈락하지만, 곡용상에서는 1음절 어간이면 ㄹ은 자음군단순화에 의해 선행 자음 ㄹ이 탈락하며, 2음절 어간이면 ㄹ은 자음군단순화에 의해 후행 자음 ㄱ이 탈락되기 때문이다.

결국 (17)의 예는 일반적인 자음군단순화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에 따라서 이형태가 다른 모습을 띠는 비자동적 교체를 일으키고 있다. (17)과 비슷한 교체 유형을 보이는 예들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18) 瓶 ; ①. 잘기, 잘게, 잘그로, 자루*, 자루두
 ②. 잘기, 잘게, 잘그로, 잘그#~잘기#, 잘그두
 粉 ; ①. 갈기, 갈게, 갈그로, 가루*, 가루두, 가루만
 ②. 갈기, 갈게, 갈그로, 갈그#~갈기#, 갈그두
 飯 ; ①. 실기, 실게, 실그로, 시루*, 시루두
 ②. 실기, 실게, 실그로, 실그#~실기#, 실그두
 木 ; ①. 낭기, 낭게, 낭그로, 나무*, 나무두
 ②. 낭기, 낭게, 낭그로, 낭그#~낭기#, 낭그두

(18)의 예는 표준어형 '자루, 가루, 시루, 나무'에 대응하는 이 지역어의 어형과 조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곡용형들이다. 이 예들은 (18①)과 (18②)가 수의적인 양상을 보여 준다. 이 중 (18①)의 유형은 (17)과 동일한 유형을 보이는 비자동적 교체의 예일 듯한데,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의 이형태는 각각 '자루, 가루, 시루, 나무'로 자음군이 없이 개음절로 끝나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 결합하는 체언의 이형태는 '작, 갈, 쉬, 낭그'으로, 이 때에 자음군 ㄹ, 어을 유지하면서 마지막 모음을 상실한 (apocope) 폐음절로 끝난다. (18②)의 경우는 단독형 '잘그, 갈그, 실그, 낭그'의 형태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뿐만 아니라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도 결합하는 양상을 보여 준다. 다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와의 결합에서는 '잘그+으(을) → 잘그'나 '잘그+이 → 잘기' 등에서처럼 어간말의

모음 ‘으’가 탈락하기도 한다. 여기서 보면 (18②)의 경우가 좀더 新形을 유지한 것들이고 (18①)의 경우가 좀더 古形으로 과도기적 분화를 겪은 것들이라 할 수 있는데, 정선 지역어는 중앙어에 비해 상당히 보수적인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4) 활음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과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결합하게 되면 모음충돌이 발생하게 되며, 이를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모음탈락, 활음삽입 등 이 외에 활음화가 일어날 수가 있다. 정선 지역어도 다른 방언들과 마찬가지로 활음화가 실현되는데 용언 활용에서도 가능하지만 곡용에서도 일부 가능하다. 먼저 곡용에서 활용화가 일어나는 경우로 다음의 예들이 있다.

- (19) 머리(頭) + 에 → 머레 ~ 머리에 ~ 머리예
- 다리(脚) + 에 → 다래 ~ 다리에 ~ 다리예
- 질꺼리(道) + 에 → 질꺼레 ~ 질꺼리에 ~ 질꺼리예
- 꼭때기(頃) + 에 → 꼭때게 ~ 꼭때기에 ~ 꼭때기예
- 끄트마리(端) + 에 → 끄트마레 ~끄트마리에 ~ 끄트마리예
- 산뻬아리(崖) + 에 → 산뻬아레 ~ 산뻬아리에 ~ 산뻬아리예

(19)의 예에서 보듯이 이 지역어의 활용화는 수의적이다. 즉 체언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이’로 끝나고, 후행하는 처격 조사가 올 때 ‘이’의 y 활용화가 일어난 후, 다시 활용 탈락이 일어나 ‘머레, 다래, 질꺼레, 꼭때게’ 등과 같은 곡용형으로 실현되는 것이다. 정선 지역어는 곡용상에서 이러한 y 활용화만이 존재하고 ‘오, 우 → w’ 활용화는 존재하지 않는다.

곡용과는 달리 활용에서는 용언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이’와 ‘우, 오’로 끝날 때, 부사형 어미 ‘-어’와 결합해서 활용화가 가능하다.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이’인 어간과 어미 ‘-어/-야’와의 결합에서 실현되는 y 활용화와, 어간 말음절의 모음이 ‘우, 오’인 어간과 어미 ‘-어/-야’와의 결합에서 실현되는 w 활용화의 예를 보자.

- (20) 가. 가- + 어두 → 개:두
 페- + 어두 → 폐:두
 뜨시- + 어두 → 뜨새두
 비비- + 어두 → 비베두
 나. 모이- + 어두 → 모예두
 쌩이- + 어두 → 쌩예두
 쟁이- + 어두 → 쟁예두
 다. 짹- + 어두 → 째:두
 짓- + 어두 → 제:두

(20가,나)는 y 활음화의 예를 보여 주는데, (20가)는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자음을 가진 경우에 y 활음화를 거친 후, ‘여→에’ 축약을 겪는 예들이다. 이는 ‘이+어’의 결합이 활음화에 의해 ‘여’로 된 다음에 ‘며느리)메느리, 겨자>게자, 커->케-(點燈)’ 등과 같은 형태소 내부 구조에서 ‘에’로의 축약 과정과 같은 현상을 겪은 것이다. (20나)는 어간말음절의 두음이 없는 경우로, 이 때는 (20가)와는 달리 y 활음화와 ‘여→에’ 축약에 이은 활음 y가 삽입된 경 우이다. y 삽입도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방식이다. (20다)에서 어간말 ㅎ을 지닌 ‘찧-’의 경우에는 어미 ‘-어두’와 결합하여 ‘찌어두 → 째두’와 같이 ㅎ 탈락, y 활음화에 이은 ‘여→에’ 축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고, ㅅ-불규칙활 용을 보이는 ‘짓-’의 경우는 ㅅ 탈락, y 활음화에 이은 ‘여→에’ 축약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다.

- (21) 뛰- + 어두 → 뛰:두
 쉬- + 어두 → 쉬:두
 꿔- + 어두 → 꿔:두

(21)의 예는 어간말음절의 모음 ‘위[iü]’가 어미 ‘-어’와의 결합한 활용형들 이다. 이 때에 iü+ə → we와 같은 특이한 교체를 볼 수 있다. 이들의 어간 말음절 모음은 역사적으로 이중모음 ‘uy’ 또는 ‘ui’이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어간 ‘t’uy-’ 또는 ‘t’ui-’는 어미 ‘-어’와 결합하여 ‘t’uy.ə → t’uyə → t’ue → t’ we:’와 같이 y 활음화, ‘여→에’ 축약, w 활음화의 과정을 거쳐 ‘꿰:’가 형성 되었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중모음이 單母音化되면서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

미 ‘-고’나 ‘으’계 어미와의 결합형에서는 ‘t'uy.go>t'ügo, t'uy.ni>t'üni’의 변화를 겪었지만,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형은 어간 ‘t'uy-’였을 당시에 어미 ‘-어’와 결합한 활용형인 ‘퉤’가 현재까지 그대로 이어져 온 것이다. 이 현상은 영동방언(나아가서 동해안 방언)의 중요한 한 특징이다.

- (22) 가. 오- + 어두 → 와두
 주 + 어두 → 조:두
 누 + 어두 → 노:두
 쑤 + 어두 → 쏘:두
 나. 배우- + 어두 → 배워두
 바꾸- + 어두 → 바꿔두
 가두- + 어두 → 가둬두

(22)는 w 활용화의 예인데, 1음절에서의 양상과 2음절에서의 양상이 차이를 보인다. (22가)의 1음절 어간에서 초성이 자음인 경우에는 ‘주+어두 → 쥐:두 → 조:두’와 같이 w 활용화에 의한 ‘워→오’ 축약을 거치는 반면 (22나)의 2음절 어간에서 말음절의 자음이 없거나, 자음이 있는 경우에는 ‘워→오’ 축약을 겪지 않는다. 물론 ‘와’의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모음으로서의 원순모음 즉 ‘아’의 원순적 대당음이 체계 속에는 없기에 축약을 경험하지 않는다.

5) 전설모음화

정선 지역어에서도 여러 방언들에서와 마찬가지로 후설모음 ‘으’가 전설모음 ‘이’로 바뀌는 현상이 있다.

- (23) 가. 無 ; 움:따, 움:쓰니~움:씨니, 움:써
 有 ; 일따, 이쓰니~이씨니, 이써
 尋 ; 찬따, 차지니, 차자~차제
 潤 ; 절따, 저지니, 저저~저제
 置 ; 언따, 언지니, 언저~언제
 坐 ; 안따, 안지니, 안저~언제

- 追 ; 쫀따, 쪼치니, 쪽차~쪽체
 나. 梳 ; 비시, 비세, 비스~비슬, 비스로
 畫 ; 나지, 나제, 나즈~나즐, 나즈로
 隣 ; 이우지, 이우제, 이우즈~이우즐

(23가)는 치경음 또는 치경구개음으로 끝나는 용언 어간의 예이며, (23나)는 치경음 또는 치경구개음으로 끝나는 체언 어간의 예인데, (23가)의 예에서처럼 용언 어간이 어미 ‘으니’와 결합할 때 선행하는 치경구개음의 위치에 동화되어 ‘으’가 ‘이’로 전설모음화(정확히는 ‘비후설모음화’)한다. 하지만 (23나)의 예에서처럼 체언 어간이 조사 ‘-으~을’이나 ‘-으로’와 결합했을 때는 전설모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즉 전설모음화는 어간이 체언인지 용언인지에 의해 다른 양상을 보이는 비음운론적인 제약을 가진 현상이다. (23가)의 전설모음화는 공시적인 현상이지만, 다른 방언에서와 같이 통시적으로 전설모음화를 겪은 것으로 보이는 예들도 존재한다.

- (24) 싱:미(性味), 실푸다(哀), 썰리킨다(쓸리다), 베실(爵), 씨다(書用冠)
 징조부(曾祖父)

(24)의 예는 음절초의 자음이 ㅅ, ㅈ 등일 때 후행하는 모음 ‘으’가 그 자음에 이끌려 전설모음 ‘이’로 동화된 경우이다.

6) 모음조화 : 부사형 어미 ‘-어/-야’의 경우

모음조화는 전통적으로 형태소 내부에서나 형태소 경계에서 일정한 부류의 음운들끼리 결합되는 현상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여러 변화를 거친 현대 국어에서는 이전의 모음조화 방식은 사라지고 극히 일부 환경에서만 모음조화가 적용되어 온 것으로 논의되어 왔다. 정선 지역어에서 보여 주는 모음조화 양상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용언 어간에 부사형 어미 ‘-어/-야’가 결합되는 경우에 ‘-어/-야’가 선택되는 양상이 조금 복잡한 모습을 띤다.

- (25) 가. 차저~차자(찻+이/아), 다머~다마(담+이/아), 쌀머~쌀마(쌀+이/아)
 도더~도다(돋+이/아), 꼬저~꼬자(꽃+이/아), 골머~골마(곪+이/아)
 나. 물:러~물:라(모르+이/아), 올러~올라(오르+이/아)
 짤리~짤라(짜로+이/아), 달리~달라(다르+이/아)
 다. 노퍼~노파(높+이/아), 아퍼~아파(아프+이/아),

(25가)는 폐음절 어간에서 어간말음절의 모음이 '아'나 '오'인 경우에 어미가 '-어'를 취하기도 하고 '-아'를 취하기도 하는 예를 보여 준다. 그리고 (25나)는 뒤-불규칙활용을 보이는 예인데, 이들 또한 '모르-, 오르-, 짜르-'와 같이 제1음절이 '아'나 '오'인 경우에 (25가)와 마찬가지로 어미 '-어'를 취하기도 하고, '-아'를 취하기도 한다. (25다)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의 결합에서 용언 어간이 각각 '노푸~노프-, 아푸~아프-'로 실현되는데, 이들 또한 제1음절이 '아'나 '오'인 경우에 어미 '-이'를 취하기도 하고, '-아'를 취하기도 한다.

한편, 뒤-불규칙활용을 보이는 용언 어간의 경우에는 어미로 대체로 '-아'를 취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 (26) 방가와(방갑-+아), 짜구와(짜굽-+아), 거부와(거불-+아)
 뚜구와(뚜굽-+아), 이두와(어둡-+아), 무수와(무습-+아)
 개루와(개魯-+아), 차구와~차과(차굽-+아)

(26)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뒤-불규칙활용을 보이는 용언 어간은 '돕+아' → '도와'의 경우처럼 어미 '-아'를 취한다는 점에서 (25)의 예와 차이를 보인다.

7) 어간 재구조화

어간 재구조화가 일어나 방언차를 드러내는 경우가 방언에는 허다하다. 특히 두드러지는 정선 지역어의 어간 재구조화 몇 유형을 들어 보인다. 규칙 활용을 보이는 중앙어의 용언 어간이 이 지역어에서는 불규칙활용을 보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런 예를 아래에서 들이보자.

- (27) 많-(多) ; 마:나~마:내, 마:느니, 망:쿠
 않(不) ; 아나~아내, 아느니, 앙쿠 cf. 하자내요(하잖아요)
 읊(是) ; 오라~오래, 오르니, 올쿠
 싫(嫌) ; 시러~시래, 시르니, 실쿠
 같-(同) ; 가타~가태, 가트니, 갈꾸

(27)은 어간에 어미 ‘-어/-아, -으니, -구’가 결합한 활용형을 보여 주는 예로서, 이들은 중앙어에서 대체로 규칙적인 활용을 한다. 하지만 정선 지역어에서는 ‘망:쿠, 마:느니, 마:나’ 등과 같이 규칙적인 활용을 보이기도 하나, ‘망:쿠, 마:느니, 마:내’와 같이 불규칙적인 실현을 보이기도 한다. 전자와 같은 경우는 중앙어와 동일한 양상이라고 할 수 있으나, 후자의 경우는 그렇지 않은 방언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는 통시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두 어간 ‘흐-’와 관련된 예임을 알 수 있다. 즉 (27)의 예들은 각각 선행 시기에 ‘만흐-, 아니흐-, 올흐-, 슬흐-, 곤흐-’에서 기원한 것으로서, 이전 시기에 이 어간에 어미 ‘-어/-아’가 결합하여 ‘만흐야, 아니흐야, 올흐야, 슬흐야, 곤흐야’와, 때로 ‘만하, 슬허’의 활용형으로 쓰였던 것이다. 이들이 음운변화(‘·’의 변화, 이중모음의 단모음화, 격음화)에 의해서 활용형들이 아마도 ‘흐야>해’에 이끌려 ‘만하>만해>마내, 올흐>올해>오래, 곤흐>고터>가태’와 같이 유추됨으로써 변화된 활용형이 현재 그 흔적을 남기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현상은 (29)에서 언급할 어간말에 ‘이’를 첨가한 현상과는 다른 변화이다. 또한 이런 현상은 아니면서 유사한 다음과 같은 예가 존재하기도 한다.

- (28) 不知 ; 모르구, 모르니, 물:라~몰:래
 均質 ; 고르구, 고르니, 꿀:라~꼴:래
 卷 ; 말고, 마니~마르니, 마라~마래¹¹⁾

(28)의 예는 표준어형에서 르-불규칙활용을 보이는 예들인데, 어미 ‘-어/-아’와 결합한 활용형이 수의적인 실현을 보여 ‘물:라~몰:래, 꿀:라~꼴:래’로

11) 진용선(1999)에 의하면 ‘내가 알애요’에서처럼 ‘알애(알+아)’가 나타나기도 한다.

나타난다. ‘누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몰:라’는 성조 언어였던 중세어에서 ‘모·르+아 → :몰라’와 같은 상승조화를 겪었던 것이다.

정선 지역어에서는 어떤 변화의 기제에 의한 것인지는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어간말음에 ‘이’가 첨가된 형태가 다른 방언에 비해 많이 눈에 띈다. ‘이’가 첨가된 현상은 체언과 용언의 경우가 있고, 체언의 경우는 다시 개음절 어간일 때와 폐음절 어간일 때가 있다.

(29) 가. 수제(수저), 동세(同墻), 부체(佛體), 먼제(먼저)

장개(장가), 혼재(혼자), 아매(아마), 읊:매(얼마), 도매(도마), 부재(富者), 마채(馬車)

농새(농사), 초매(치마), 가매(가마), 아깨(아까), 감재(감자), 방애(방아), 수채(水車)

염쇠(염소), 화튀(화투), 쇠(소, 牛)

가). 일고비#(일곱), 비지#(빚), 터리#(털), 저타리#(저탈, 腋), 베리기#(벼룩), 베라기#(벼락)

꼬리#(꼴), 노오리#(노을), 색까리#(색깔), 비까리#(빛깔), 눈꾀비#(눈꼽)

나. 꿔다(방귀를~, 실을~), 건네다(건너다)

자내다(자나다), 만내다(만나다), 놀래다(놀라다), 바래다(바라다), 자래다(자라다, 充分)¹²⁾

다. 뒤전(투전), 맨두(만두), 휘딱(후딱), 매디(마디), 댄추(단추), 뒤메(두메)

뭐리다(두드리다), 개찹다(가깝다), 맹건(망건), 배깥(바깥)

(29가-가')의 예는 체언 어간말에 ‘이’가 첨가된 경우이고, (29나)는 용언 어간말에 ‘이’가 첨가된 경우이다. 체언 어간말에 ‘이’가 첨가된 예 중에서 (29가)는 개음절 어간에 ‘이’가 첨가된 예이며, (29가')은 폐음절 어간에 ‘이’가 첨가된 예이다. 그리고 (29다)는 제1음절에 ‘이’가 첨가된 특이한 예이다. 정선 지역어에서 이유가 분명치 않은 어간 재구조화로 이루어진 다음의 예도 존재한다.

12) ‘자래다’의 경우는 ‘재리다, 재리고, 재레(재리+어)’와 같은 활용형을 보이기도 한다.

(30) 예자(여자), 예:치(여치), 엔장(연장), 예식(女息), 엔지(연지), 예펜네(여편네)

만일 ‘예’와 ‘여’가 전설모음으로부터 후설모음으로의 모음추이와 관련된 관계에 있다면 음운론적 재구조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암시를 제공할 것이다. 다만, 이 ‘예’와 ‘여’의 대응 방언은 정선 지역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III. 문법적 특징

정선 지역어의 특징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문법적인 특징을 서술하기 위해서 먼저 문법 형태를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조사와 어미의 문법 형태를 보고하되, 그 형태에 대한 기능까지 함께 간략히 서술하게 될 것이다. 어미의 경우에는 연결어미, 관형사형어미, 종결어미 등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 종결어미는 다시 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약속형 등으로 나누어서 종결어미의 형태를 서술하되, 종결어미의 형태는 상대경어법의 등급에 따라서 분류하여 기술한다.

1. 조사

조사는 크게 격의 기능을 담당하는 격조사와 문법적인 기능이 없이 의미를 담당하는 특수조사로 나뉘는데, 격조사와 특수조사로 나누어서 정선 지역어에서 나타나는 조사의 형태에 대해서 서술하기로 한다.

1) 격조사

① 주격조사

주격조사로는 '-이/-가'가 널리 쓰인다. 그리고 주격 '-이'는 체언 어간말이 개음절인 경우에 결합하며, '-가'는 체언 어간말이 폐음절인 경우에 결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旌善에는 어간말이 개음절임에도 불구하고 주격 '-

이'가 선택되는 경우가 있다. 다음의 예를 보자.

- (31) (버선)코이 넓다 / (버선)코이 반뜩 서야 한다.
모이(穀) 많다.¹³⁾
모이(角) 쪘다.
터이 좋아야 …

(31)의 예는 개음절로 구성된 명사임에도 주격 '-이'가 결합한 경우인데, 이 경우에 주격 '이'만 결합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발화에서는 '코가, 모가, 터가'와 같이 주격 '가'가 결합하기도 하여 수의적인 양상을 보인다.

그런가 하면 주격조사가 중복된 현상으로 보이는 예들이 존재하는데, 다음이 그러한 예를 보여 준다.

- (32) 텔이가 질고 …
풀이가 안 좋다.
 살구나무 꼴으는 빛깔이가 다르다.
 거칠현이 일곱이 오셨다구 거칠현이가 된 겁니다.
노율이가 선다
 빛이가 많으니까 …
마한들이가 가는데 …

(32)의 예는 앞서 (29가')에서 살펴본 바가 있듯이 폐음절 어간에 '이'가 첨가되어 재구조화가 완성된 후에 주격 '-가'가 결합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주격조사가 중복된 현상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전자와 같은 입장이라면 '털+이' > 터리, 빛+이' > 비지'가 형성되고 난 후에 각각 '터리, 비지'에 주격 '-가'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고, 후자의 입장이라면 공시적으로 '털+이+가', '빛+이+가'가 결합하여 '털이가', '빛이가'가 결합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주격 중출형은 의미상 명사를 주제화시키는 기능이 약하게나마 있는 듯하다.

13) '모(穀)+이' → 모이'와 '모(角)+이' → 모이'의 경우에 분절음 차원에서는 동음이의 어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모르나, 성조(또는 음조)을 고려한다면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된다. 즉 '모(穀)+이' → 모이[HLI]와 '모(角)+이' → 모이[LHI]로 실현되어 성조적인 차이를 보인다.

② 대격조사

정선 지역어에서 쓰이는 대격조사에는 중앙어와 같이 '-을/-를~-ㄹ'이 사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들 형태뿐만 아니라 동일한 환경에서 수의적으로 '-으/-르'가 사용되기도 한다.

(33) 가. 팔을 밑에 얹거든

먹을 먹어라

나. 술을 한 잔 먹고

날으 씻고

약을 해 주구

(33)의 예는 체언이 폐음절 어간일 때 대격조사가 실현된 경우로서, (33가)에서는 '-을'이 사용된 예이며, (33나)에서는 동일한 환경에서 '-으'가 사용되는 예이다.

(34) 가. 배를 해 입구

느릅채를 뺏게다가(벗겨다가)

저고리를 입어야죠.

가'. 훨덜 뛰야 한다 그래요.

직 꾼는 걸(직 굽는 것을)

쉬운 걸 알아.

보드룬 셀 하우.(보드라운 재를 하오)

나. (허리)뛰르 웬:야 한다.

가랭이를 이러크러 이러케 해요.

(34)의 예는 체언이 개음절 어간일 때 대격조사가 실현된 경우인데, (34가)에서는 '-를'이, (34가')에서는 '-ㄹ'이 사용된 예이며, (34나)에서는 동일한 환경인 개음절의 경우 '-르'가 수의적으로 사용된 예이다. 수의적인 듯이 교체되는 경우 그들 사이에 어떤 의미상의 차이가 있는지는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체언 어간에 따른 대격조사의 이형태의 교체 조건은 다음과 같다.

└ -을~-으(폐음절 어간)

└ -를~-ㄹ~(-르)(개음절 어간)

2) 특수조사

정선 지역어에서 사용되는 특수조사 중에서 이 지역어의 특징을 잘 드러내 주는 형태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① -은~-, -는~-, -

정선 지역어의 특수조사 중에서 특징적인 것으로는 '-은/-는'이 있다. 이것 이 일반적인 형태로 쓰이기는 하나 때로는 조사 '-은'이 한번 더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존재한다.

(35) 가. 팔이라는 것 그름에 …

살 사람은 다 살기 매련이거든.

가. 꿀으는 다르더구만.

밭 많은 사람은 보릴 걸었다가

마늘은 세통배기

사방은 틀리세요.

나. 글반지는 귀하고

겁페기는 안 까쳤다고

우린 물:러써요(물랐어요).

(35가,나)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은/-는~-, -'의 예로서, (35가)는 폐음절 어간에서 이형태 '-은'이, (35나)는 개음절 어간에서 이형태 '-는~-, -'이 사용된 경우이다. 그런데 (35가)의 예는 (35가)와 동일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은'이重加되어 '은+은→으'으로 사용되었음을 보여 준다. 체언 어간에 따른 이들 이형태의 교체 조건은 다음과 같다.

[-는~-, -(개음절 어간)
-은~-, -으(폐음절 어간)

여기서 '-으'는 때로 '으느'로 쓰이기도 한다.

② -버터~-부텀

표준어 '-부터'에 대응되는 이 지역어의 형태에는 비원순모음화를 겪은 '-
버터'와 '-부터'에서 첨사 모이 첨가된 '-부텀'이 있다.

(36) 여가 옛날버터 그런 일들이 많이 나요.

그날부텀은 동지때까지는 일년내나 일:만 해야 되니까

모버텀 싱궈라(모부터 심아라).

③ -보다~-보답

표준어 '-보다'에 대응되는 이 지역어의 형태로 첨사 모이 첨가된 '-보답'
이 쓰이기도 한다.

(37) 배보다는 더 커요.

날보다 더 몰려.

낮보답 밤이 절:다.

④ -만침~-만춤~-마쿰~-마꿈

표준어 '-만큼'에 대응되는 이 지역어의 형태로는 '-만큼'에서 ㄴ이 탈락된
형태인 '-마쿰, -마꿈'과 '-만침, -만춤'이 쓰인다.

(38) 요만침 좀씨를 훌훌 뿌리우.

안 팬 거 이만춤 낮고, 팬 거는 이만춤 더 높어요.

알이 콩알마쿰 한 기 있고

절가치마꿈 하지요.(젓가락만큼 하지요)

⑤ -까지~-꺼지~-꺼짐

도착을 나타내는 특수조사 '-까지'에 대응되는 이 지역어의 형태에는 '-꺼
지'와, '-꺼지'에 첨사 모이 덧붙은 '-꺼짐' 등이 있다. 이들의 의미상의 차이
역시 분명하지 않다.

(39) 동지때까지는 일년내나 일:만 해야 되니까

나무꺼지 파다가 심을라고

우리는 농촌에 연태꺼지
시방꺼짐 풀이 안 나고
서울꺼짐 갔다 오는데

⑥ -마등~-마등~-마듬~-마두

표준어 ‘-마다’에 대응되는 이 지역어의 형태에는 ‘-마두’가 있고, 이런 형태에 첨사 ㅁ 또는 ㅇ이 덧붙어서 ‘-마듬’, ‘-마등’, ‘-마둥’이 쓰이기도 한다.

- (40) 집집마등 물 담아 놓고
집집마등 돈: 디례(들여)
 밀을 해마듬 못:해서 못 먹소
 지역마두 언설도 다르고
때때마두 돈 있고

이상의 조사들 중에서 주격조사로서의 충출형 ‘-이가’, 대격조사로서의 ‘-으, -르’, 특수조사로서의 ‘-으는(-으느)’ 등은 강원도 영동방언의 특징이다. 이로부터 보면 정선 지역어는 어느 정도로 영동방언의 특징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타 특수조사 형식 중에 특히 첨사 ‘ㅁ’의 첨가형이 중앙어에 비해서는 활발히 쓰이는 것도 이 지역어의 특징의 하나라 할 수 있다.

2. 어미

어미는 크게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나누어지며, 어말어미는 다시 연결어미, 관형사형어미, 종결어미로 나누어진다. 선어말어미의 형태들은 대부분 중앙어와 크게 다를 바가 없으므로, 어말어미를 중심으로 그 형태에 대해서 기술해 보기로 한다.

1) 연결어미

- ① -(어/아)서 ≈-(어/아)사, -(어/아)갖고 ≈-(어/아)가주고
 원인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표준어의 ‘-(어/아)서’는 정선 지역어에서도 쓰

이지만, '-(어/아)서'의 형태로 쓰이기도 한다.

- (41) 이 다리로 건네서(건너서) 가요.
 이게 자꾸 빠져 내레 가사(가서) …
 이 물이 내려서(내려서) 그 밑으로 새거든요.
 눈이 어두와서(어두워서)

그러나 '-(어/아)서'와 비슷한 의미를 갖는 어미로 용언 어간에 '-(어/아)갖고≈가주고'를 덧붙여 쓰이는 경우도 있다.

- (42) 떡을 쪄가주고 큰 돌을 놓고는 떡을 췄셔 바로 먹지 않고
 벌:정게 익어가주고 먹으면 좋은데 맛이 시고
찧개가주고(묽겨) 내挫折(나충에) 과일 막 섞어서
이래갖고 돼지우리 제:라(지이라)

② -미

대등한 나열(또는 열거)를 나타내는 표준어의 어미 '-며'에 해당되는 정선 지역어의 형태에는 '-미'가 있다.

- (43) 칭구찌리 모이면 서로 장난하미 유:모 씹어가미 쓰는데
칠뛰미 널뛰미 하다가
 서로 돌어개미(돌아가며) 웃어개미(웃어가며) 때리고

③ -으민서, -으미서

'울면서 왔다'에서 보듯이 동시적인 상태나 행위를 가리키는 의미를 지니는 어미로는 표준어에서 '-으면서'가 쓰이며, 이에 해당하는 정선 지역어의 형태로는 '-으미서도≈-으민서도' 등이 있다.

- (44) 찾아가서 함(한번) 본다 하미서도(하면서도) 그게 …
 물건(물건) 없이미서는(없으면서는)
 가수기 한 그루 먹으민서
 회전기가 돌아가민서
 행교(鄉校) 세우미서는(세우면서는)

④ -으면, -으면, -으문, -으며

假定을 나타내는 ‘-으면’에 해당하는 정선 지역어의 형태는 ‘-으면, -으문, -으며’ 등으로 나타난다. 이 중에서 ‘-으면’의 형태가 제일 흔히 쓰인다.

(45) 학교서 안 오면 못 보는 기고

친물로 씨:면(씻으면) 살이 보드라와요.

만날(맨날) 올리가 보며(올리가보면)

네 개 다 엎어지며 모지.

물건 제대로 찾일라문(찾으려면)

기양(그냥) 할라문 모양새가 높아요(없어요)

⑤ -는동, -는지

否定의 대상을 나타내는 어미 ‘-는지’에 속하는 정선 지역어의 어미로는 표준어형과 동일한 ‘-는지’뿐만 아니라 ‘-는동’도 쓰인다. 이 ‘-는동’은 항상 동사 ‘모르-’나, 통사적 구성 ‘알지 못하-’에 지배를 받아서 목적어의 기능을 같이 수행하고 있다.

(46) 여계 있는지 모르겠네.

선생님네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소만

그 집도 겨울이 돼서 불을 껐는데 아:지 못하구서

어느 길로 왔는데 모르겠어요.

⑥ -는데, -은데

표준어에서 ‘-는데’는 정선 지역어에서도 대체로 동일한 형태와 기능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약간 차이를 보인다. 표준어에서는 동사일 때 이형태 ‘-는데’가, 형용사일 때 이형태 ‘-은데’가 쓰인다. 그런데 이 지역어에서는 동사일 때는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형용사일 때는 일반적으로 ‘-은데’가 사용되기도 하지만, 드물게 ‘-는데’가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47) 가. 아래 마구 내리 찢는데

다리를 건너는데 시방 글로(그리로) 버스 못 들어오고

또 이리 가야 하는는데

설:(씻을) 때 뜨뜻한 게 좋은데
나. 참새가 많는데

(47가)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동사일 때는 ‘-는데’, 형용사일 때는 ‘-은데’가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법을 보여 주는 데 반하여 (47나)는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형태 ‘-는데’가 사용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⑦ -고설랑

‘고설랑’은 어미 ‘-고서’ 다음에 첨사 ‘-근랑’이 덧붙어서 쓰이는 형태로서, (40)의 예에서 제시된 어미 ‘-(어/아)서’와 의미상 뚜렷이 구별되지는 않는 듯하다.

(48) 아까 여:와서 옆에 집인 줄 알고설랑 얘기를 했는데
먼(무슨) 빼다구(빼다귀) 가주고설랑 맨들고

⑧ -게~-거~계르~그러~-거리

부사형어미 ‘-게’에 해당되는 정선 지역어의 어형으로는 ‘-게, 그, 거’를 포함하여 ‘-르, -리’가 덧붙은 ‘-계르, -그러, -거르, -거리’와 같은 다양한 어형이 보인다.

(49) 가. 이제 그렇게 내려와요.
물이 작으며 한 달 넘게 결례요(결려요).
똥구름계 구녕을 뚫어요.
이래 니려가다(내려가다) 잘못하면 이제 크게 말리거등요.
나. 요래 똥그랗거(똥그랗게) 다 한가지지마는
물이 별점거 나기는데
우리는 그렇거 지내요.

(49가)는 어미 ‘-게’가 쓰인 예이며, (49나)는 어미 ‘-거’가 쓰인 예이다. (49가)의 경우는 ‘-게’가 동사나 형용사에 관계없이 쓰이고 있으며, (49나)의 경우는 ‘-거’가 형용사와만 결합하고 있다. 현재까지 동사와 결합한 어미 ‘-거’가 찾아지지는 않지만 ‘첫아들만 낳거리’에서 보듯이 ‘낳거리’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동사에서도 '-거'가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50) 그렇게르 첨: 먹어요.
 여 붓고 이렇거러 해요.
 첫아들만 낳거려(첫아들만 낳개)
 가랭이로 이렇그려 이렇게 해요.
너르거르 맨들고

(50)의 예는 어미 '-게' 또는 '-거'에 침사인지 분명하지 않으나 '-르'가 다시 결합하여 '-게르, -거러, -그려, -거르' 등이 쓰인 경우이다. 이들은 동사나 형용사에 제약을 받지 않고 이를 모두와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⑨ -거시리~-그시리

어미 '-게'의 의미를 지니는 '-거'에 다시 '-시리'가 덧붙은 '-거시리'는 '-게끔'과 거의 같은 의미로 이 지역어에서 쓰이며, 이것은 (49), (50)과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른 것으로 보인다.¹⁴⁾

- (51) 이만하거시리 해서 그트마레(끝에) 넣고
이렇그시리 맨들고

⑩ -간두루

어미 '-으니까'에 '-두루'가 덧붙어 쓰인 형태가 이 지역어에 쓰이기도 한다.

- (52) 여:(여기) 보니깐두루 그 전에 들떤(듣든) 말과 달려.

14) 이 지역어에서는 또다른 '-시리'가 존재하는데, 표준어의 '자연스레, 고생스레'에서 보이는 '스레'에 해당하는 '-시리'가 그것이다. 이것은 '고상시리, 까닭시리' 안 하거든'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접미사 '-시렵'과 접미사 '-이'가 결합하여 형성된 것이다.
 고상시리(고생스럽게)
 까닭시리(까탈스럽게, 어렵게) 안 하거든.

2) 관형사형어미

관형사형어미는 ‘-는/-은’이 일반적으로 쓰이나, 표준어와는 출현 환경에서 약간 다른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53) 장딴지 깨전 걸(깨진 것을)

쏟어전 걸(쏟아진 것을)

옹구로 핸 기(옹기로 한 것이)

어제 반 기(본 것이) 짐승이랬어요(짐승이었어요).

관형사형어미는 일반적으로 어간과 직접 결합하여 후행하는 명사를 꾸며 주는 기능을 하는데, 정선 지역어도 그와 같은 일반적인 기능을 한다. 하지만, (53)의 예와 같이 어간에 직접 결합하지 않고 ‘-어/-아’에 의한 활용형에 과거시제 관형사형어미 ‘-ㄴ’이 결합한 형식이 쓰이는 경우가 있다. 즉, ‘깨지+어+ㄴ → 깨전, 하+어+ㄴ → 핸, 보+아+ㄴ → 반’ 같은 형식들이 쓰인다.

3) 종결어미

종결어미 형태를 문장의 종류(평서형, 의문형, 명령형, 청유형, 감탄형, 약속형)에 따라 나눈 후, 이를 다시 경어법의 등급에 따라 분류하여 각각의 형태를 기술하기로 한다. 정선 지역어에 대한 경어법과 관련된 논의는 거의 전무하다시피하므로, 경어법의 등급을 나누고 이에 해당하는 문법 형태를 확인하는 것으로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지역어의 경어법 등급은 크게 4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등급 체계는 합소체, 하오체, 하게체, 해라체의 4등급이며, 하오체와 합소체의 등급에 두루 쓰이는 해요체와 하게체와 해라체에 두루 쓰이는 해체가 있다.

① 평서형

평서형어미 중에서 합소체 등급에 사용되는 것으로는 ‘-습니다/-ㅂ니다’가 있다.

- (54) 가. 갑니다. / 맛이 참 닙니다. / 먹습니다. / 좋습니다.
 나. 가겠습니다. / 갔습니다 / 먹었습니다. / 좋았습니다.
 다. 대부분이 예잡니다. / 칼입니다. / 예자했습니다.
 라. 갑니다. / 닙니다. / 좋습니다.

(54가)는 어간에 '-습니다/-ㅂ니다'가 직접 결합한 예이며, (54나)는 각각 선어말어미 '-겠-, -었-/았-'과 결합한 예이다. 그리고 (54다)는 계사와 결합한 예인데, '-습니다/-ㅂ니다'가 계사와 직접 결합한 경우에는 '예자(女子)+입니다 → 예잡니다'에서처럼 체언 어간이 개음절인 경우에 계사 '이'가 탈락하기도 한다. 특히 '-습니다/습니다'가 계사와 직접 결합하지 않고, 과거시제 선어말어미가 선행하는 경우에는 '-했-'이 사용된다.

이 '-했-'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분석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했-'을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로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했-'을 분석하여 계사 '-일-'과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했-'의 결합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의 입장에서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로 이형태 '-했-'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며, 후자의 입장에서는 계사의 이형태로 '일'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는 계사 '-일-'의 잔존형인 셈인데 현재형의 경우에도 '사람이래요'와 같이 이 계사 '-일-'의 흔적을 볼 수 있다.

(54라)는 회상시제 '-더-'가 종결어미와 융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예인데, 이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동남방언의 경우와는 달리 상대방이 아주 높은 어른일 때는 쓰이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오체 어미로는 '-오~우/-소'가 있다. '-오~우/-소'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변이형으로 '-오~우'는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쓰이며, '-소'는 자음으로 끝나는 어간 뒤에서 쓰인다.

- (55) 가. 군청 맹기오. / 보리를 비우. / 까불어서 말리우.
 맛이 다오. / 끊이 문소. / 밥으 먹소. / 씨굽소.
 나. 옛날에는 그란 거 읊았소. / 갔소. / 달았소. / 먹었소 / 먹겠소
 다. 책이오. / 짐승이오. / 개요. / 책이했소.

하게체 어미에는 '-네', '-르세'가 있다.

- (56) 가. 가네 / 파네 / 먹네
 나. 사투리를 저보다 더 낫게 아시네.
 그건 음질이 쪘네. / 좋았네
 다. 우리집 개네. ~갤세.
 칼이네. ~칼일세.

(56다)에서 볼 수 있듯이 하게체 어미가 계사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네' 뿐만 아니라 '-(이)ㄹ세'도 사용되는데, 이 점에 (56가,나)에서처럼 용언 어간과 직접 결합할 때 '-네'만 쓰이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해라체 어미로는 '는다/ㄴ다'와 '다' 등이 있다. '는다'는 자음 뒤에서 쓰이며, 'ㄴ다'는 모음이나 유음 뒤에서 쓰이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변이형이다. 그리고 형용사의 현재형이나 용언의 과거형, 계사 '이' 다음에는 '다'가 쓰인다.

- (57) 가. 위에 언질란다(엎으련다). / 아침에 노오리가 선다. / 오줌을 누킨다.
 / 입는다. / 단다.
 나. 사겠다. / 입었다.
 다. 우리집 개다. / 사람이다.

해체 어미에는 '-어/-아', '-거든', '-지', '-는데' 등이 있다. 특히 '-어/-아'의 경우는 용언 어간에 직접 결합하거나 선어말어미와 결합하여 쓰이며, 이와 수의적인 이형태 관계에 있는 '-야~-여~-래'는 계사와의 결합에서만 쓰인다.

- (58) 가. 참꽃낳그 그것도 두 가지 있어. / 도련님이 더 높어.
 요즘은 수확이 안 나니까 안 되거든. / 옛사공도 육하거든
 아파 힘들지. / 닦 맨들지. / 오새는 그냥 따신 기지(따뜻한 것이지).
 다른 말은 모르겠는데(모르겠는데).
 나. 미카 쥐었어(겪었어). / 맞아 혼났어. / 팔았지. / 징조부가 돌아가셨지.
 다. 곤치구 말았단 말이래. / 음석 어데든지 한가지래. / 우리 손자래.
 바싹 말랐단 말이야. / 뱀이 또배 치는 기야.
 만상재여 / 첫가래여. / 허연 참꼴으는 바램이여.
 칼이야~칼이래. / 개야~개여~개래 / 짐승이야. / 짐승이래.
 라. 못할 짓이네. / 같잖도 안 하네.

(58다)의 ‘-(이)래’는 역사적으로 계사 ‘-일-’과 관련이 있을 듯한데, ‘-일+어/아’가 왜 ‘-이래’로 쓰이는지 현재로서는 분명하지가 않다. 적어도 이 ‘-(이)래’ 형태가 쓰이고 있는 점에서는 정선 지역어가 ‘-(이)야/여’가 선택적으로 쓰이는 중부방언과는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58라)는 회상시제 ‘-더’가 종결어미와 융합된 형태로 존재하는 예이다.

해요체 어미는 해체 어미에 ‘-요’가 결합된 것이다. 즉 해체 어미인 ‘-어/-아, -지, -거든, -는데’ 등의 어미에 ‘-요’가 결합하여 해요체 등급이 된다.

- (59) 가. 다람쥐가 꿀밤 먹죠. / 같은 정선이라도 틀레요. / 익으면 벌어져 떨기 되거든요.
 나. 콩이 들먹들먹하더래요. / 그걸 뜯어 잡숫고 살았대요.
 거울으로 철새들이 많이 왔어요.
 다. 손자가 마흔하네(41세)이래요. / 보리도 항 가지래요. / 짐승이랬어요.

(59가,나)는 용언 어간에 해체 어미가 결합한 예이며, (59다)는 계사와 결합한 예이다. 특히 (59다)에서 알 수 있듯이, 해체 어미에서는 ‘-야~-여~-래’가 자유롭게 결합하였지만, 해요체 어미에서는 ‘-래’와 ‘-요’의 결합형만 쓰이고, ‘짐승이랬어요’에서 보듯이 ‘-래’와 과거시제 선어말어미 ‘-었/-았’과의 결합형도 쓰인다.

② 의문형

의문형어미 중에서 합소체 등급에 사용되는 어미로는 ‘-습니까/-ㅂ니까’가 있다.

- (60) 가. 갑니까 / 팝니까 / 먹습니까 / 좋습니까
 살림살이도 해야 하는데 어떠합니까
 나. 갔습니까 / 팔았습니까 / 먹었습니까
 다. 갑니까 / 책입니까 / 칼입니까 / 짐승이랬습니까
 라. 삽디까 / 팝디까 / 좋습디까

(60가)는 용언 어간에 ‘-습니까/-ㅂ니까’가 직접 결합된 경우이며, (60나)는 선어말어미 ‘-었/-’이 결합된 경우이다. 그리고 (60다)는 계사 ‘이’과 ‘-습니까/-

느니까'가 결합한 경우이며, 계사와의 결합에서는 과거시제 선어말어미로 '-랬-'이 쓰여서 '짐승이 랬습니까(짐승이었습니까)'와 같이 쓰인다. 그리고 (60라)는 회상시제 '-더-'가 종결어미와 융합된 형태로 쓰이는 예인데, 이 또한 앞서 평서형어미에서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높여주는 상황에서 쓰이기는 하되, 상대방이 아주 높은 어른일 때는 쓰이지 않는다.

하오체 어미로는 '-오~우~-소'가 쓰인다. '-오~우'는 모음 뒤에서 쓰이며, '-소'는 자음 뒤에서 쓰이는 음운론적 조건에 따른 이형태들이다.

- (61) 가. 농사가 되우 / 집으로 가오 / 뭐 우리가 아오

씨구우오 / 나뿌우

비료 칠 게 있소 / 짚은 사람이 방아를 짖소 / 맛이 씨굽소

- 나. 집으로 가겠소 / 입었소

- 다. 이게 멋이오 / 책이오 / 개요 / 소요 / 짐승이오

(61가,나)와 같이 용언 어간과 결합할 경우에는 모음 뒤에서 어미 '-오'나 '-우'가 자유로이 쓰이지만, 계사 뒤에서는 어미 '-오'만이 쓰인다.

하게체 어미로는 '-는가/-은가, -ㄴ가'가 쓰이며, '-는가'는 동사 어간 뒤에서 쓰이며, '-은가'는 형용사 어간 뒤에서 쓰임은 물론이다. 그리고 계사와의 결합에서는 '-ㄴ가'가 쓰이는데, 다만 과거시제의 경우에는 '-했는가'가 흔히 쓰인다.

- (62) 가. 어데 가는가 / 내가 멀: 아는가 / 파는가 / 먹는가

씨구운가 / 좋은가

- 나. 갖는가 / 갈라는가 / 가겠는가

- 다. 이게 쟁:가 / 여운가 / 개:했는가 / 여우랬는가

해라체 어미로는 '-나'가 쓰이는데, '계사 + 과거시제'의 경우에는 '-랬나'가 쓰인다.

- (63) 가. 물건을 사나 / 어데 가나 / 파나 / 먹나 / 좋나

- 나. 꿈을 꿰었나 / 저걸 머하러 뺏게 갔나 / 먹었나 / 좋았나

다. 그기 머이나 / 개나 / 여우나 / 사:람이나 / 그것도 끄트마리나
개랬나 / 여우랬나

해체 어미로는 '-어/-아'가 주로 쓰이는데, 이것은 용언 어간과의 결합에서만 주로 쓰이고, 계사와의 결합에서는 '-야~-래'가 주로 쓰인다. '-야'가 때로 '-여'로도 쓰인다.

- (64) 가. 사 / 팔아 / 먹어 / 좋아
 나. 샀어 / 팔았어 / 먹었어
 다. 칼이야~칼이래 / 개야~개여~개래 / 짐승이야 / 짐승이래

해요체 어미에는 해체 어미인 '-어/-아'와 '-래'에 '-요'가 결합한 형태가 주로 쓰인다. '-아요/-어요'는 용언 어간과의 결합에서만 쓰이며, 계사와의 결합에서는 '-래요'만이 쓰임은 물론이다.

- (65) 가. 사요 / 팔아요 / 먹어요 / 좋아요
 나. 샀어요 / 팔았어요 / 먹었어요
 다. 칼이래요 / 개래요 / 짐승이래요 / 그 집 전화번호가 몇 번이래요
 칼이랬어요 / 짐승이랬어요

③ 명령형

명령형 어미가 현재시제 동사에만 결합될 수 있다는 점은 중앙어와 별반 차이가 없다. 등급에 따른 명령형 어미에는 '-으십시오/-십시오(합쇼체)', '-으오/-오(하오체)', '-게(하게체)', '-아라/-어라(해라체)' 등이 있다.

- (66) 가. 사십시오 / 파십시오 / 입으십시오
 나. 사오 / 파오 / 먹으오 / 입우오
 실광에 언지시오. / 사시오 / 파시오 / 입으시오
 배 좀 근네 주게. / 쌈아 먹게. / 입게
 다. 공부 안 할라면 기냥 집이나 바라. / 피를 뽑아라.
 기냥 빨리 가라 / 학교 가거라
 자기 전에 오줌 누고 자거라. / 여기서 자라.
 잤다 읊 직에 놀지 말고 빨리 오너라. / 굽히 다네 오너라. / 땅게 와라.

(66다)의 해라체 어미에는 규칙활용을 할 뿐만 아니라 불규칙활용을 하여 '-아라/-아라'와 형태적으로 조건된 이형태인 '-거라'와 '-너라'가 쓰이기도 한다. 어간 '오-'의 경우는 '와라~오너라'로 실현되어 어미 '-아라∞-너라'가 쓰이며, '가-, 자-'의 경우는 '가라~가거라, 자라~자거라'의 실현을 보여 '-아라∞-거라'가 쓰인다.

해체 어미로는 주로 '-어/-아'가 쓰이는데, 해요체 어미로는 '-어요/-아요'가 쓰인다.

- (67) 가. 피워 / 먹어 / 팔아
- 나. 피워요 / 먹어요 / 팔아요

④ 청유형

청유형 어미는 등급에 따라 '-읍시다(하오체)', '-세(하게체)', '-자(해라체)' 등이 있다.

- (68) 가. 갑시다. / 십시다. / 먹읍시다 / 입읍시다
- 나. 가세 / 사세
- 다. 산딸 따로 가자. / 돋자
어려운 사람들은 서로 도와 주자.

청유형 어미는 등급별로 이에 해당하는 어미가 모두 존재하지는 않아서 '합쇼체'나, '해체', '해요체'에 해당하는 어미는 발견하기 힘들다. (68가)는 상대방을 높여주는 상황에서 쓰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방이 아주 높은 어른일 때는 청유의 상황이 어려워 잘 쓰이지 않는다. 그리하여 '하오체' 등급을 넘나들면서 쓰이는 경우가 오히려 흔하다.

⑤ 감탄형

감탄형 어미에는 등급에 따라 '-구만(하게체)', '-구나(해라체)'가 주로 쓰인다. 등급별로 모두 존재하지는 않고 '하게체'나 '해라체'에서만 감탄형 어미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감탄형 어미가 청자 또는 상대방에 대한 대우 차원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려는 상황이 더 앞서기 때문일 것이다.

(69) 가. 으·런들이 얘기 안 하다구만.

내 종손주가 팔십서이구만.

꽃오는(꽃은) 다르더구만.

나. 네 시 넘었구나.

⑥ 약속형

약속형 어미에는 '-음세/-ㅁ세(하게체)', '-으마/-마(해라체)가 주로 쓰인다. 역시 다른 등급에서는 약속형이 쓰이지 않고, 때로 평서형으로 대체하여 유사한 기능을 나타내도록 한다.

(70) 가. 물건을 사음세. / 내가 먹음세.

나. 물건을 사오마. / 물건을 팔마. / 내가 먹으마.

IV. 맷음말

본 연구에서는 정선 지역어의 언어적 특징을 크게 음운적 특징과 문법적 특징으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이 지역어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운목록상의 특징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자음목록이나 단모음목록은 중앙어와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이중모음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y 선행 이중모음 중, 두음이 없는 경우에 '여, 야' 등은 심한 제약을 보이는데, 그 이유는 형태소 내부에서 모음축약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성조방언적인 특징으로는 고정적인 성조형을 가진다는 점과 파생어 형성에 참여하는 특정한 접미사가 고정적인 성조형을 보인다는 점이다. 하지만, 토박이 화자들은 성조에 대한 인식만큼이나 음장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강하여 정선 지역어는 순수한 성조방언도 음장방언도 아닌 제3의 운소방언, 즉 성조·음장 후효 방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음운현상과 관련해서 특징적인 현상으로는 경음화, ㄷ 구개음화, 자음군 단순화, 활음화, 전설모음화, 모음조화 등이 있다. 이러한 특징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현상	환경	예
정음화	말(馬) 서울(京城)	말뚜~말두, 말보다, 말조차, 마리, 마레 서울쎄~서울서, 서울뚜~서울두, 서울보다, 서우리, 서우레
ㄷ 구개음화	밑(底)	미치, 미틀~미트, 미튼~미트는, 미테, 미트로
	꼴(花)	꼬치, 꼬틀~꼬트, 꼬튼~꼬트는, 꼬테, 꼬트로
자음군단순화	늙-(老) 뚫-(貫)	늘른다, 늙꾸, 늙그너, 늙거 뚫:른다, 뚫:꾸, 뚫부니, 뚫버
	닭(鷄) 여덟(八)	닭#, 달기, 달그~다글, 당반, 닥뚜, 닥뿌됨 여덜#, 여덜비, 여덜브~여덜블, 여덜두~여덜뚜, 여덜만, 여덜부됨
	지붕(屋蓋) 입술(脣)	지붕#, 지붕기, 지붕개, 지붕글, 지붕두, 지붕부됨 입술#, 입술기, 입술개, 입술글, 입술두~입술뚜, 입술부됨
	머리(頭)+ 에 꼬트마리(端)+ 에	머레 ~ 머리에 ~ 머리에 꼬트마례 ~ 꼬트마리에 ~ 꼬트마리에
활음화	파- + 어두 뜨사- + 어두 모아- + 어두 찧- + 어두 젓- + 어두	파:두 뜨새두 모에두 찌:두 제:두
	뛰- + 어두 쉬- + 어두	퉤:두 쉐:두
	오- + 아두 주- + 어두 배우~ + 어두 가두~ + 어두	와두 조:두 배워두 가둬두
	웁- + 으니 있- + 으니 젖- + 으니 앉- + 으니 쫓- + 으니	웁:따, 웃:쓰니~웁:씨니, 웃:쎄 일따, 이쓰니~이씨니, 이쎄 절따, 저저니, 저저~저제 안따, 안자니, 안저~언제 쫄따, 쪘치니, 쪽차~쪼체
	담- + .어/아 끓- + .어/아 다르- + .어/아 오르- + .어/아 아푸- + .어/아 노푸- + .어/아	다머~다마(담+어/아) 끌머~끌마(끓+어/아) 달러~달라(다르+어/아) 울러~울라(오르+어/아) 아페~아파(아프+어/아) 노페~노파(노+어/아)
	방갑- + .어/아 짜굽- + .어/아	방가와(방갑+어) 짜구와(짜굽+어)

이 현상은 모두 영동방언(강릉·삼척)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현상 중 경음화(말뚜, 서울뚜), □ 구개음화, 활용상에서의 자음군단순화, 곡용상에서의 활음화, 전설모음화 등은 경북 북부방언의 특징과도 일맥 상통한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음운현상과 관련해서 정선 지역어는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지만 영동방언에 속하면서 영서방언보다 경북 북부방언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듯하다. 또한 동북방언과의 관련성도 앞으로의 과제가 된다.

문법적 특징과 관련해서는 문법 형태에 의해 방언적인 특징이 부각될 수 있을 텐데, 문법 형태를 조사와 어미로 나누어 제시해 보면 우선 조사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조사	-이/-가	-이(폐음절 어간, 개음절 어간) -가(개음절 어간) -이가(폐음절 어간)
	-을/-를	-을~-으(폐음절 어간) -를~-ㄹ~-르(개음절 어간)
특소조사	-은/-는	-는~-ㄴ(개음절 어간) -은~-으는~-으느(폐음절 어간)
	-부터	-벼터~-부텀
	-보다	-보다~-보답
	-만큼	-만침~-마콤~마꿈
	-까지	-까지~-꺼지~-꺼짐
	-마다	-마두~-마듬~-마등~-마등

이 지역어에서 쓰이는 어미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연결어미	(어/아)서	(어/아)서, -(어/아)사, -(어/아)갖고, -(어/아)기주고	
	.며(나열)	.으미	
	.으면서	.으민서	
	-면(假定)	.으면, .으면, .으문, .으며	
	-는지(否定)	.는동, .는지	
	-는데/-은데	.는데(동사 어간, 형용사 어간) .은데(형용사 어간)	
	-고설랑		
	-게	.게~~.거~계르~그러~~.거리	
		.거시리~.그시리	
		.간두루	
	관형형어미	-은/는	
		.은, .는, .안, .언	
종결어미	평서형	합소체	-습니다/-ㅂ니다
		하오체	-오~~.우/.소
		하게체	-네, -ㄹ세
		해라체	-는다/.ㄴ다
		해체	.어/.아~~.아(-여, -래), .거든, .지, .는데,
		해요체	.어요/.아요, .래요, .거든요, .지요
	의문형	합소체	-습니까/-ㅂ니까
		하오체	-오~~.우/.소
		하게체	-는가/.은가, -.ㄴ가
		해라체	-나
		해체	.어/.아~~.아(-여, -래)
		해요체	.어요/.아요
명령형	청유형	합소체	-으십시오/-ㅂ시오
		하오체	-으오/-오
		하게체	-게
		해라체	.이라/.아라
		해체	.어/.아
		해요체	.어요/.아요
	감탄형	하오체	-읍시다
		하게체	-세
		해라체	-자
		해체	.구만
		해요체	.구나
		약속형	
	약속형	하게체	-음세/-ㅁ세
		해라체	.으마/.마

경어법의 등급체계는 영동방언이나 영서방언과 거의 동일한 양상을 보여준다. 문법 형태에 있어서는 거의 영동방언의 특징을 나타내며, 중부방언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일부 문법 형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슷한 특징을 보

여 준다. 대격조사 ‘으-르’나 주제화 특수조사 ‘-ㄴ/-으는~으느’ 등은 영동 방언과 동북방언의 특징을 보여 주며, 나열형어미 ‘으미’, 동시적인 상태나 진행을 가리키는 어미 ‘으민서’, 부사형어미 ‘고설랑, -게~거~게르~그려, -거시리~그시리, 간두루’, 해체 등급을 갖는 평서형어미 ‘래’, 해요체 등급을 갖는 평서형어미 ‘래요’ 등은 영동방언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 그 외에는 대부분 영서방언의 문법 형태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문법적 특징과 관련해서 정선 지역어는 영동방언에 속하면서 경북 북부방언보다는 영서방언과 더 밀접한 관련성을 갖지 않나 여겨진다. 역시 앞으로의 면밀한 검토를 기다린다.

현대 방언은 성조 또는 익양의 특성에 의해서 크게 동부방언과 서부방언으로 대별할 수 있으며, 동부방언은 다시 동북방언과 동남방언으로 나뉜다. 강원도 영동방언은 일면에서 동북방언과 동남방언 사이의 단계적인 전이지 역에 속하는 특징이 있는데, 정선 지역어는 음운적인 특징과 문법적인 특징을 살펴보았을 때 영동방언적인 특징에 더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운소적인 면에서는 영서방언이 가진 운소적인 특징도 보여서 영동방언과 영서방언의 전이적인 특징을 함께 보여 주며, 음운현상과 관련된 면에서는 경북 북부방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하며, 문법적인 특징과 관련된 면에서는 영서방언과 중부방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들을 종합해 볼 때, 정선 지역어는 영동방언권에 속하면서 南으로는 경북 북부방언에 영향을 받고, 西로는 영서방언 또는 중부방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듯하다.

이상의 방언적 성격은 어휘적인 면에서도 유사하다. ‘이미’에 대한 ‘하마’, ‘모두’에 대한 ‘마카’, ‘일부러’에 대한 ‘역부러(로)’, 그리고 ‘알맞다’의 유의어인 ‘마치맞다’ 등등 동부방언형들이 쓰이고 또 ‘왜’에 대한 영동방언형 ‘왜서 (사)’ 등도 쓰이고 있다. ‘옻놀이’에 쓰이는 ‘옻판’의 세부 명칭도 동부방언에 가까운 어휘를 쓰고 있다. 정선 사람들 자신이 자기네 말을 ‘뚝뚝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선 지역어가 전체적으로 영동방언에 속한다는 자기 인식의 반영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논저

- 金鳳國(2002가), 江原道 南部地域 方言 語幹末子音群의 音韻論, 『國語學』 39, 國語學會, pp. 173-200.
- _____(2002나), 江原道 南部地域 方言의 音韻論, 서울大 博士學位論文.
- 방언연구회 편(2001), 『方言學 事典』, 태학사.
- 元勳議(1978), 江原道 方言 研究(1) - 平昌, 旌善, 益越 등지를 중심으로, 『關東鄉土文化研究』 2, 春川教大, pp. 1-62.
- _____(1979), 江原道 方言 研究(2) - 平昌, 旌善, 益越 등지의 文法을 中心으로, 『關東鄉土文化研究』 3, 春川教大, pp. 1-36.
- 李基文(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 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震檀學會, pp. 119-147.
- 李秉根(1973), 東海岸方言의 二重母音에 대하여, 『震檀學報』 36, 震檀學會, pp. 133-147
- _____(1976), 派生語形成과 i逆行同化規則들, 『震檀學報』 42, 震檀學會, pp. 99-112.
- _____(1978), 國語의 長母音化와 補償性, 『國語學』 6, 國語學會, pp. 1-28.
- _____(1979),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 _____(1990), 音長의 辭典的 記述, 『震檀學報』 70, 震檀學會, pp. 107-124.
- _____(2001), 方言과 方言學, 『方言學 事典』, 태학사, pp. 19-27.
- 이병근·정인호(1999), 中國 조선어 방언 조사 - 原平北方言을 중심으로 -, 『한반도와 중국 동북 3성의 역사 문화』, 서울대학교출판부, pp. 1-75.
- 李翊燮(1972), 江陵 方言의 形態音素論의 考察, 『震檀學報』 34, 震檀學會, pp. 97-119
- _____(1981), 『嶺東嶺西의 言語分化 - 江原道의 言語地理學』, 서울大學校出版部.
- 진용선(1999), 『동강아리랑 -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수문출판사.
- 崔明玉(1998가), 『國語音韻論과 資料』, 태학사.
- _____(1998나), 『한국어 方言研究의 實제』, 태학사.
- _____(1998다), 現代國語의 聲調素體系, 『國語學』 31, 國語學會, pp. 23-52.
- _____(1999), 現代國語의 聲調型과 그 分布, 『震檀學報』 88, 震檀學會, pp. 555-581.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90),『韓國方言資料集 II』(江原道 篇), 韓國精神文化研究院.

小倉進平(1923/大正12年), 嶺東方言,『朝鮮』七月號, 朝鮮總督府, pp. 103-124.

_____ (1928/昭和3年), 嶺西方言,『文教の朝鮮』三月號, 朝鮮教育會(朝鮮總督府學務局內), pp. 2-12.

_____ (1940), The Outline of the Korean Dialects, Tokyo: The TokyoBunko.

_____ (1944),『朝鮮語方言の研究(上.下)』, 東京: 岩波書店.

河野六郎(1945),『朝鮮方言學試攷』, 京城: 東都書籍.